

본문: 사도행전 1:3~11

제목: 증인이 됩시다

1.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 하심이 이 때니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 “몇 날”에 대해 이야기하시자, 제자들은 이를 그들의 편견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곧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라고, 성령의 세례의 결과로 제자들이 자신의 증인이 될 것, 즉 회복을 이루는 자들은 제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인이 되어 회복할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나라가 아니라, 땅 끝의 이방을 통해 완성될 나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다시오실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그리고 이 천사들의 말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2.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여전히 나의 경험과 생각, 신념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끊임 없이 우리의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심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볼 수 있게 하심에 기뻐하고 황홀해 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 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 없이 말씀으로 깨닫고, 알고, 듣고,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알고, 듣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저 구원의 감격에 만족 할 것이냐?”, “다시 오신다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 될 것입니다.

이웃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VIP를 만나고 강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복음과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지 말고, 그 복음과 구원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교회갱신을 위한 분석 사도행전 1』, 생명의 말씀사, 유상섭

『한규삼 목사의 성경주석 사도행전』, 생명의 말씀사, 한규삼

『신약주해 사도행전』, 총회교육부, 이상근

본문: 사도행전 9:1~9

제목: 회심

1. 바울의 회심 사건

“조국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다”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前 성인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홍명보는 저조한 성적으로 많은 이들의 질타와 함께 경질된 후 했던 말입니다. 한 번의 경질과 그 과정에서 받은 질타는 지금까지 그가 한국 축구계에 끼친 영향과 성과를 모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도 인생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가문과 신분,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력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도록 했습니다.(행 26:9)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 의하면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길 위에서 홀연히 빛나는 빛을 보게 된 사울은 내심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전혀 기대와 다른,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무에 달려 저주 받아 죽은 자가 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바울이 쌓아올린 신학과 신앙, 나아가 그의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정할 수 없는 신적 존재의 현현의 장면에서 자신을 친밀히 부르시며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이 경험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학적 지식, 신앙과 그 열심, 이로 얻어지는 모든 성과와 인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룬 모든 것이 헛것이었구나” 절망과 좌절이 그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부정”, 이것이 회심의 모습입니다. 그는 3일간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것은 사울 혼자만 아니었습니다. 7절은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사울은 이를 회상하며 사도행전 22:9은 “알아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사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동일하게 들었어도 알아듣거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심은 사람의 어떤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만나도록 예비하십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십니다. 사울은 다시 눈을 뜨고 그 뜬 눈으로 전혀 다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고, 지금까지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십자가가 필요없는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기초한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치고 살아냅니다.

2. 우리의 회심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과 같은 예수님과 극적인 만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정말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구원을 이루는 회심의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성화라는 관점에서 회심의 경험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영화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여전히 내 경험과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가치있음을 물질적 성과로 증명하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고 가치 없는 것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 할 때만 우리는 진정 의미있는 삶,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 십자가가 기초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만남으로 헛된 삶을 벗어나고 진정으로 의미있고 행복한 인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회심의 경험합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교회갱신을 위한 분석 사도행전 1』, 생명의 말씀사, 유상섭

『한규삼 목사의 성경주석 사도행전』, 생명의 말씀사, 한규삼

본문: 사도행전 15:1~11

제목: 종의 멍에를 벗어 버리라

1. 멍에를 씌우지 말게 하자

이방인들이 다수였던 안디옥 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교회의 형제들이 찾아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앞선 10~1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신 구원을 무시하는 가르침이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예루살렘교회에서도 이어졌고, 관습을 넘어 율법까지 지켜야 한다고 더 엄격한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들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을 받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방인과 교제한 것을 질책했던 할례자들도 베드로의 경험을 듣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했습니다.(행 11:17) 그렇기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면, 유대인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11절) 또한 베드로의 초기 설교에도 이러한 내용은 이미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들에게 자신들도 능히 메지 못할 멍에를 씌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멍에는 사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었으나 그들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세로부터 이어져온 관습과 율법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 복음의 증인이 되어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2. 자유의 제한과 구원받은 삶

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방편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편, “믿음” 외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들이 종처럼 메었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그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자녀를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온전한 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유, 봉사와 헌신에 지치는 대부분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로서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메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이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녀임을 날마다 다시 마음에 세기어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와 능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립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교회갱신을 위한 분석 사도행전 2』, 생명의 말씀사, 유상섭

『한규삼 목사의 성경주석 사도행전』, 생명의 말씀사, 한규삼

『신약주해 사도행전』, 총회교육부, 이상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설교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본문: 사도행전 20:17~35

제목: 교회를 부탁해(교부해)

1. 장로들에게 넘어난 복음의 소명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많은 만남이 있는 만큼 이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질 수 없고, 애절한 관계일 수록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깊어집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별 중에 해야 할 말들은 고르고 고르는 진정성 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별이 그러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어떤 상황과 대상에 거리낌 없이 “철저히 증언”하여 주를 섬겼고, 이를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령에 매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숨보다 귀한 복음을 “철저히 증언”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의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남겨진 이들에게 하고자하는 말을 고르고 골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별의 말의 중심에는 26~27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은 스스로 깨끗할 정도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와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나가면 외부에서, 심지어 지금 이별의 말을 전해듣는 장로들 중에도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어그러진 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협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삼 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자기 자신을,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들도 수고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자신의 역할은 마무리 되었고,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복음과 말씀에 대한 책임의 공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해준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삶으로 증언할 것을, 교회와 성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우리들에게 넘어난 복음의 소명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부탁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시고 복음의 비밀을 모두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새계명의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 같은 목회자에게만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모본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 모본이 되어 우리를 겸손과 눈물로 섬기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이들에게 다시 피로 사신 교회를 동일하게 부탁하여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주님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말씀과 복음을 맡은 자로서 교회와 성도를 보살핍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교회갱신을 위한 분석 사도행전 2』, 생명의 말씀사, 유상섭

『한규삼 목사의 성경주석 사도행전』, 생명의 말씀사, 한규삼

『신약주해 사도행전』, 총회교육부, 이상근

본문: 사도행전 28:23~32

제목: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

1. “거침 없이”로 끝나는 사도행전

로마에 도착하여 가택연금인 사도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강론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구체적인 설명에 늘 그리했던 것처럼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분열되어 서로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에 머무는 동안 이방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처럼 그는 2년 동안 연금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유가 제한된 상태의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합니다. 이를 “모든 담대함”으로 가르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로마의 유대인들의 반대가, 각 선교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아그립바 왕 앞에서도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가 제한된 상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은 “거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거침 없이”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택연금 중이었던 바울의 모든 말과 행위는 그를 지키고 있던 군인을 통해 로마 정부에 모두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니 내버려두자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파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지만 복음의 전파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땅 끝은 아닙니다. 즉, 사도행전의 주제인 복음의 전파는 끝날 때 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것으로 종결되지만, 복음의 전파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거침 없이” 계속되는 복음 전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상황과 시대적 사조들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전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선뜻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나 세력도 믿는 자를 구원하는 복음의 확산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복음의 전파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2천년을 뛰어넘어 지금도 구원을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돌아올 때 까지 복음의 전파는 지금도 “거침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나 방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해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려 여겨지는 그 상황, 심지어 갇혀 있는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바라던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얻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사조를 뛰어넘어 모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교 한문장 요약

“모든 담대함으로 거침 없이 전해지는 복음의 증인들이 됩시다”

- 참고 문헌 및 설교

『교회갱신을 위한 분석 사도행전 2』, 생명의 말씀사, 유상섭

『한규삼 목사의 성경주석 사도행전』, 생명의 말씀사, 한규삼

『신약주해 사도행전』, 총회교육부, 이상근

『NIV 적용주석 사도행전』, 솔로몬, 아지스 페르난도